

광양 태금중학교 통·폐합 갈림길

건물 노후화·소음공해 등 환경 열악...주민들 찬·반 의견대립

개교 35년 역사의 광양 태금중학교가 통·폐합 갈림길에 섰다. 광양시 태인동에 위치한 태금중학교는 건물의 노후화와 산업화로 인한 심각한 소음공해 등으로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하 일부 학부 등을 중심으로 학교 시설 및 통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공간지역으로 급격하게 변모해 가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졌다. 특히 일부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지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상당한 의견조율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조만간 의견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재홍 태금중학교 총동창회장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당한 대안을 찾는 게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며 "통합 찬성 측에 몇 차례 주민공청회를 제안했으나 내년 예산편성 등 일정이 촉박해 외면했다"고 말했다.

박주식 운영위원장은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통합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양 태금중학교 문제는 태인동의 위상하락 및 지역개발 이익에 배치된다는 주장과 이번 기회에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통합 찬반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태인동 일부 통폐합 반대 주민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진 모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생각이 가슴이 아파"면서 "통폐합 대상은 50명 이하인 하교가 대상인데 전교생이 76명인 학교가 왜 통폐합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광양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통폐합 찬반 논란 속에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중 마무리돼야 전체적인 예산확보 및 학사일정 등이 계획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태금중학교는 지난 1975년 3월에 개교한 이후 277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구례군 족구협 족구대회 31개팀 150명 출전 '성황'

'제4회 구례군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가 최근 관내 직강 16개팀과 각 읍·면 및 클럽동호회 15팀 등 모두 31개팀 15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일반부 우승은 간전면 '네발가락 A팀', 장년부 우승은 '구례 119 안전센터팀'이 차지했다. 구례군 족구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족구대회는 구례지역 축구인구 저변확대와 생활스포츠로서 동호인들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순천 개사육장 오·폐수 무단방류

주민들 소음·악취 피해 호소에 市는 뒷짐만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 관내 일부 개 축산사육장에서 오·폐수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관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순천시 별량면 죽림·화산마을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1000여 마리의 개 사육이 시작되면서 마을을 하천의 오염은 물론 소음과 심한 악취 등으로 사육장 주변에서 농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 개 사육장은 지난 1995년 소축사로 허가받은 것으로 현재 축종변

경을 하지 않고 개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사육장 주인이 인근 마을이장인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다. 사육장에서 하천으로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을 버릴 수 있도록 관료가 설치돼 있고, 개 사육작업은 야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음식물 찌꺼기 등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또 사육장 출입구 주변에는 개 분뇨가 쌓여 있어 주변 일대가 악취로 진동하고 있으며, 하천 바로 앞에 오·폐수 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저장 용량을 이미 초과해 오·폐수가 그대로

로 동룡천으로 흐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별량면 무풍리 측 사에서도 오·폐수가 그대로 인근 하천으로 흐르고 있어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축산 사육장이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지만 순천시 담당부서는 별문제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박모(78·죽림마을)씨는 "사육장 소음과 악취로 인해 밭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축종변경을 안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현장 점검 시 오·폐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관리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여수시립국악단 '박람회 홍보 전도시'

中 웨이하이시·상하이박람회 파견 홍보활동

여수 시립국악단이 '2010 여수 세계박람회'를 널리 알리는 홍보 전도시로서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 여수시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주일간 중국 웨이하이시와 상하이박람회 한국관에 시립국악단을 파견해 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 시립국악단은 지난 12일 산동

대학 웨이하이캠퍼스에서 교민위안 공연에 이어 14일 상하이박람회 한국관에서 흥겨운 국악 한마당 잔치를 펼쳐도 여수 세계박람회를 홍보했다. 유성인 문화예술과장은 "중국 관람객들 우리 전통음악의 국악을 좋아해 박람회 홍보효과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고흥군 수협 '사랑의 쌀' 불우이웃 280포대 지원

수협중앙회 이주형 수협은행장과 고흥군수협 고흥남 조합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3일 목거노인 및 조손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주민과 조합원 140명에게 '사랑의쌀' 10kg 280포대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고흥군수협이 수협중앙회 주관의 '2010 한가위 사랑의 쌀' 행사를 유치해 전국에서 유



일하게 관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됐다. 이 은행장과 고흥조합 등 임직원은 행사후 도량을 걷정까지 등 2가정을 직접 방문에 도배와 장관 시공을 돕고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ju@

축제의 계절 가을로 초대합니다

“생태 寶庫 정원길 함께 걸어요”

10월 9일~24일

‘순천만 갈대축제’

올해 ‘순천만 갈대축제’는 10월 9일부터 24일까지 주말 잔치로 열린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생명의 땅 순천만을 날다'라는 주제와 '하늘이 내린 정원 순천만'으로 부제로 열리며 체험행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축제운영을 위해 주말에 운영한다. 특히 오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순천만 국제 환경아트페어' 행사와 연계·개최돼 순천만의 자연과 예술과의 만남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개막 공연으로 '갈대와 흑두루미의 사랑 콘서트'가 열리며 가을 음악회, 국악파티인 '임동향'과 함께하는 '흑두루미 가족콘서트' 등 공연을 비롯해 ▲생태체험 걷기 대회 ▲갈대·철새·갯벌·환경과 예술체험 등 순천만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무진기행 백일장 ▲순천만 전국사진촬영대회 ▲순천만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난 2008년 열린 갈대축제에는 66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75만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갈대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태도시' 순천의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천만 생태자원의 실용적 콘텐츠화로 순천만 갈대축제가 우리나라 대표 생태환경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전어 잡고 맛보며 추억 쌓아요”

10월 2일~3일

‘보성 전어축제’

'보성 전어축제'가 10월 2~3일 이틀간 보성군 회천면 울포 해수플장과 솔밭해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보성 전어축제는 보성전어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남) 주관으로 득랑만에서 갓 잡아 올린 전어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 주요 행사로는 ▲전어잡기 ▲전어구이 체험 ▲전어요리 체험·시식회 등 신나는 체험행사와 축하공연·관광객 어울 마당·지역 특산품 전시 판매 등의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울포 해수플장에 전어를 풀어놓고 참가자들이 직접 잡은 전어를 즉석에서 회와 구이로 맛



볼 수 있는 전어잡기 체험과 전어요리 시식은 이번 전어축제의 백미로 손꼽힌다. 예로부터 청정 득랑만에서 잡히는 보성전어는 고소하고 비린내가 없는데다 약간의 단맛까지 있어 양념 없이 회로 먹어도 제격이고 소금을 적당히 발라 통째로 바삭 구워먹어도 그만이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김형남 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가을 전어 머리에는 갸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다”며 “보성 전어축제가 놀러 와서 가을 전어도 맛보고, 가족·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서강빌딩 매각공고

(위치 : 광천파출소 사거리 대rob)

—물건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64-6

—면적 : ·대지 : 734㎡(225평) ·건물 : 4,764㎡(1,412평)

·두입신용협동조합 총무과 TEL. 062-263-0136

광천동 e-편한세상

2010년 우수건설사 선정, 대통령상 수상

〈층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률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이며, 공과금저렴

2010년 전세대 별 특별할인(취·등록세 50%감면혜택)

- 111㎡ (구, 33평) >분양가 2억3천9백만 >최대할인(2천만원)
- 142㎡ (구, 43평) >분양가 3억5천만 >최대할인(6천만원)
- 164㎡ (구, 49평) >분양가 4억2천4백만 >최대할인(8천만원)
- 194㎡ (구, 58평) >분양가 5억7백만 >최대할인(1억2천만원)

고객님의 만족과 성취감을 갖도록 **타입인**과 상담 받으시고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 잡으세요!!

● **타입인중개사** ● **대리124후** 후부 입주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대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월동 준공업지역**
 - 골프연결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대가 22억원
- 광산구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대가 6억 7천만원
 - 개별공사지 6억, 대출 3억 ~ 3억5천만원 가능
 - 주거지, 전시장, 카센터, 사육적합
- 마록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사령실 뒤면 도로변, 생생녹지 860㎡(260평) 매대가 7억 6천만원
- 백전동 창고 공장부지**
 - 백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대가 2억4천만원
- 광산구 1층 일반주거지역 매매**
 - 산수동 1744㎡(528평) 매대가 1억8천만원
 - 박호동 645㎡(195평), 648㎡(196평)매대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평평 토지 매매

- 풀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전, 집중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대가 2억9천만원

건물 매매

-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 매매**
 - 쌍촌동 대지 278.5㎡(84.2평)/건평 662㎡(200평)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 대출 4억 8천만원 매대가 12억 5천만원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594.5㎡(180평)**
- 비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대가 7억 8천만원

T. 062)371-1900, 010-2006-0115
삼루 무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주요소 광산구 평 491평 용지 5억 교환가능 10억
- 대지, 월산동터라부근 4차선도로변 492㎡(149평) 공시지가 5억 7천만원 매도4억3천만원
- 금남로5가 대지503㎡ 152평 공시지가 4억2천 매도4억8천
- 원룸건물 남구 구동 공영빌딩 10층 2소리름2개 대출1억 전세금1억4000만원 매도4천만원
- 금남로 2가 대지500평 건평 982평 공시지가 90억 매도 41억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지가 3억2천 매도 2억4천
- 마록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6억3천
- 대지, 두림동 소방도로전 275㎡(83평) 1억5천
- 금남로 상업용 부지 주택 영업용 적합 공시지가 매도 8400만원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6건평 173 건물 3억 매도 6억5천
- 목포시 대지 413평 3층건물 공시지가 5억2천 매도 6억2천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237 건평 1463 공시지가 40억 3천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 5억3천 월세 2천 매도 39억

매도·교환

- 충정동 4차선 도로변 2중주거지 866평 공시지가 13억8천 매도16억 2천
- 두림동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용 적합 평당 370만원
- 원룸 광주역 앞 대지 108평 건평 383평 투룸 17개 원룸 6개 2개는 공실 전세 8500 월 650 매도 7억2천
- 합평동 해보면(문장입구) 4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550평 창고·식당·공장등 다용도 1억9300만원
- 생생녹지 서구 덕동동 1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4천만원
- 자연녹지 706평 매월동 서광주역 부근 매도 9억9천만원
-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아함, 1900만원
- 화순군 한천면 임야 13,862평 공장 등 다용도 평당12000원
- 서구 유촌동 생생녹지 1631 평과 창고, 공시지가 14억 3천 최고는 1년 시공예 2200만원에 임대중임 22억 5천만원
- 원룸건물 화정동 대지 91평 건평 145평 원룸 10개 투룸 3개 스리룸 2개 주택업고 전세 1억천 원380 매도 5억3천 주택은 주인이 사용
- 고흥상 영일지구 광산구 우산동 999평 영일환경 좋은 6억 7천

목욕탕 임대

- 북구 일곡동 APT수선세입이곳 영일빌딩 430평 보증금2억 월450만원 수익성 좋음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중주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칠 형성되어 월세가 다르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 011-602-2532 (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재사내편)

인생열쇠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하여 도원하는바를 성취 못하시는 분
- 이유없이 삶에 장애가 생기고 병으로 시달리시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르고자 하는 꿈을 꼭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안명,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 062-383-8982